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15일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8월 18일. 이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정개특위가 내후년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 기한인데다 논의 대상 중에는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 권한 폐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수도룩하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할 기도가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거나 더욱이 핵을 사용하는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헤어나기 힘든 고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기고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일반적으로 전남·전북·제주 지역을 통틀어 '호남(湖南)'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이 호남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문헌'(文獻)은 기록 자료(文)와 구술 자료(獻)를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 참고가 되는 기초 자료를 가리킨다.

민생 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인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우리를 보통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권력 다툼이 그들 자신을 위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우리를 보통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 석으로, 가능한 한 비례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단순 다수제'의 국회의원과 단순 다수결의 대선 제도가 결정적이다.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단순 다수제'의 국회의원과 단순 다수결의 대선 제도가 결정적이다.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 속에서 우리를 보통 사람의 삶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게 하는 출발점이 선거제도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기원해야 하겠다. '각자의 몸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창생을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하신 대중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민족과 인류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자.

또한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서 지켜내고 전 인류를 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폭은 삼시간에 두 도시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다투어 핵을 개발하여 수만

향상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의 약화는 심각하다. 국가적 과제 인식과 과제 수행 능력의 약화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누가 누구와 만나는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느냐가 우선이지 않은 곳이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물론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와 우리의 문제 해결 및 삶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경쟁의 민생 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社說

재가동 직후 정지 사고 최다 한빛원전 안전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전1이 정지하는 사고가 지난 38년 동안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후 원전 재가동 승인 뒤 3개월 내 발생한 정지 사고가 국내 원전 21기에서 150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재가동 후 정지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판결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고(故)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했다.

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63개 중 사실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같은 날에 한쪽에선 기념식을, 다른 한쪽에선 추모식을 치른다.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10월 12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부른다. 다만 미국은 날짜를 특주 월요일로 정한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동 승인 후 1주일 이내 정지한 사고도 44건에 달했다.

한빛 1호기는 2025년, 한빛 2호기는 2026년이면 설계 수명(40년)이 종료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명 연장판 밀어붙일 게 아니라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서둘러야 한다.

다. 특히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일어난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 계엄군의 진술에 비춰 보면 (시위대가 아닌)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4월 5·18단체의 소송 제기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 전일판 결정 총판 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령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심판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無等鼓



세계의 여러 국가와 정하지 않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정한다.

기념과 추모

주제의 폭력적 역사를 되돌아 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회 부 220-0661
사 회 부 220-0642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